**14010974 컴퓨터공학과 이기택**

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논의한 책이며, 토론의 의미가 강한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토론한 책이다.공자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자를 양성 하였으며, 70제자 중에서 공자의 사상을 잘 이었던 증삼과 유약이 엮은 책이다. 논어는 공구, 중니라고 뒤에 10편에서 지칭을 하고 있고 앞의 10편과 뒤의 10편이 다르게 보아야 한다. 뒤의 10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여 공자의 의견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편을 논어로 받아 들이고 있다. 제나라에서 전승된 논어인 제논어 그리고 또 다른 노논어, 한나라때 경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고논어 이와 같은 3개의 논어가 숭고하게 발전하다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쟁을 정리한 정현학자는 노논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2개의 논어를 참고하여 논어를 해설한 책을 편찬하게 된다. 그것이 논어주이다. 그 이후에 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현의 논어를 다 정리하고 여러 해설을 모아 정리하여 논어집해라는 책을 정리하였고, 이 책은 논어의 원본이 되었으며, 송나라의 주자가 논어집주를 내놓아 성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안연은 안빈낙도가 어울리는 제자였는데 가난하고 홀어머니를 모셨다.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즐기고, 배움에 있어서 진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것.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지만 실천은 잘하는 모습이 안연이라고 칭찬하였다. 안연은 공부가 끝나면 그것을 바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안연이 요절하자 , 공자는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공자는 ‘인’ 에 관하여 논 하였는데 , 인은 두사람 이상의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조화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애인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자는 인에 대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극기복례는 자기자신의 한계를 이기는 , 잘못된 욕망과 단점을 이겨내고 도덕적인 질서인 ‘례’ 를 회복하는 것이라하였고, 충서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 깊은 내면의 도덕성을 말하는 ‘충’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공감되게 하는 것, 즉 도덕성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충서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소불욕은 자기가 욕구를 갖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의미이다. 안연은 인이 무엇인지 공자에게 질문하자 인은 극기복례라고 대답하였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각성시켜 인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공자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을 말하였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들이며, 그 순간 하나하나 일상속에서 우리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질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였다. 논어의 예는 주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국법, 신성의례의 관혼상제에서 중요한 개인의 일이었다. 공자는 공이무례즉로 신이무례즉사 용이무례즉란 직이무례즉교 라고 하였는데 공손하기만 하고 예로 단속이 되지 않으면 고생하며, 신중하고 예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용기만 있고 예가 없다면 난폭해지며, 진실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미덕이지만, 예가 없다면 각박해진다는 것이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가난하지만 비굴하게 굴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함이 없다면 어떤지 질문하자 공자는 미약빈이락 부이호례자야 가 더 나은 삶이라고 대답하였다. 가난함에도 즐길 줄 알고 부자인 사람은 도덕적인 질서, 문화적인 양식 예를 가지면 더 나은 삶이라는 뜻이다.예를 사용할때에는 조화를 중요하게 여겨야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하고 좋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치스럽게 의례를 하는 것보다 검소하게 의례를 하는 것이 낫고, 상례를 치를때에도 능숙하고 쉽게 세련되게 하는 것보다 슬픔을 표현하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예’ 와 도덕정치사상 에 대해 말하길, 군주 즉, 정치가가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더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내고 풍요로운 민생, 백성을 근본으로 행동해야 군주의 도덕성을 믿고 어떻게 이끌어가도 정치를 백성이 믿는 것이다. '수기이안인’ 도덕적인 품성을 가꾸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는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가꾸어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 도덕정치사상이라고 하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덕의 근본적인 것은 인이며, 군주가 편하게 마음먹고 솔선수범 한다면 백성들이 알아서 선해질 것이다. ‘자육선 이민선의’ 군자 또는 정치가의 덕은 바람과 같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 제도를 만들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바람의 영향을 덕이 영향을 받아 백성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로 가지런하게 단속하면 스스로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알게되고 ,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이 된다. 도덕적 정치는 정명이다. 이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치를 실천하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 다워야 한다는 의미다.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도덕정치사상에 대해 토론을 세부적으로 하였으며, 도덕적인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다. 인 ,의 ,예 ,지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 행위에 대해 맹자는 연구하였는데 인간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본성대로 생각한다면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혈육을 잘 아끼고 사랑하는 자연적인 본성 내면적인 도덕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이라고 부르고 도덕적인 본성의 출발을 말하는 친친 그리고 , 존경하는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인 경장은 의를 말한다. 이처럼 인과 의 두가지의 내면적인 도덕과 외면적인 도덕의 실천, 사회적인 도덕 실천을 말하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잘 가공했을때 훌륭한 인격이 나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